

2017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적중문제

2교시

1. 다음 가상 대화의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도덕 교사 :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을 단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도덕 교육 이론가 : 네, 학생들의 도덕성은 3수준 6단계에 따라 발달합니다. 학생들의 도덕성을 단계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학생들 개인의 인지 구조 발달이 중요하지만, 도덕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 학교 환경의 역할과 잠재력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도덕 교사 : 그러면 학교의 도덕적 환경을 고려한 접근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덕 교육 이론가 : 그와 관련한 접근법으로는 ()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학생들 개인의 도덕적 추론능력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접근법은 공정함과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개방적인 토론을 장려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추론을 접하게 함으로써 인지적인 갈등을 자극합니다. 또한 규칙 제정과 적용에 대한 공적인 참여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높은 단계에서의 집단적 유대를 강조합니다.

☞ 도덕교육론문제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콜버그가 전기에 시도한 “가설적 딜레마 토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도덕성 발달을 한 단계 더 높은 다른 사람이 사고방식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인지의 갈등”과 “역할 채택”의 자극을 받아 자연적으로 발달단계의 상향 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형식 중심>의 도덕교육이었다. 따라서 전기의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도덕교육의 목표를 “인습 이후 수준(제5단계~제6단계)”인 <원리의 도덕>에 두었다. 하지만 콜버그는 장기간에 걸친 실험연구 결과 참여자 중 극소수의 성인(成人)만이 원리의 도덕 수준인 제5단계에 도달했고 제6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콜버그는 이러한 사실이 청소년들에게 “인습 수준”이상의 도덕성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2. 다음은 도덕 발달 이론가의 글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과 자아 정체성의 통합을 통해 정립 되는데, 이 통합이 가장 고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도덕적 이해가 자아 개념의 한 부분이 될 때이다. 이때 도덕적 이해에 머물렀던 도덕성은 적어도 원리상, 개인 성격의 한 측면이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와/과정서를 함께 가지게 된다. ... (중략)... 통합이 되면 도덕적 이해는 결국 그 자체로 도덕성의 본질에 내재해 있는 ()의 힘을 획득한다. 따라서 도덕적 이해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적 욕구,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다양한 보상 등에

의해 사람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후회, 슬픔 혹은 죄책감과 같은 정서가 표현된다.

☞ 2017 실천모의고사 2회 8. 다음은 도덕과 교육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밑줄 친 것을 참고로 이 이론가가 콜버그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또한 이 이론이 인성교육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해 작성방법에 따라 쓰시오. [10점]

갑: 도덕행동을 위한 인지적 동기는 행위 시 자신에게 충실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을: 자신에게 충실한 감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갑: 자아일치(self-consistency)에 대한 내적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갑: 나쁜 짓을 하도록 자극하는 유혹 상황에서 ‘난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을: 아! 바로 도덕적 정체감을 말하는 것이군요.
갑: 맞습니다. 도덕을 알거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렵고, 도덕이 개인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어야만 비로소 도덕적 지식이나 이해는 동기적 힘의 추가적 지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

- 먼저 밑줄 친 것을 참고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작성할 것.
- 그 다음 인성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작성할 것.

☞ 블라시의 도덕적 자아모델 연습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 속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블라시의 도덕적 자아모델은 도덕 판단의 인지적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도덕판단과 행위간의 불일치를 극복하게 하는 도덕적 ()의 근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도덕과 자아가 통합되어 도덕적 ()이 형성될 때 도덕판단과 도덕행위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는 블라시의 연구결과는 도덕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입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내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명령해 온 것들을 잘사는 것의 제1원리로 받아들이고 또한 행하라. 가장 먼저 ()은/는 영원한 존재이며 완전히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하라. 대중들은 그가 악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주고, 선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이로움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추측이다. 그는 스스로 어떤 고통도 모르며, 다른 것들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밤낮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너는 자나 깨나 고통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 우리는 무계가 있고 크기는 다양하지만 그 크기가 무한하지 않은 원자들이 덩어리를 형성할 때 처음부터 소용돌이가 끼어들어서 천체의 회전 법칙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의 원인을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 자연학의 역할이며, 행복은 천체 현상의 본성에 대한 지식들을 획득하는 데 있다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체는 ()(이)며 천체 자신의 의지를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 서양윤리문제 25.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하시오.

원자들의 구성물인 육체와 영혼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육체를 통해 느껴지는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도, 사후 세계도,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이 세상에는 물질만이 존재하며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의 산물인 육체와 그 육체가 지니고 있는 감각적 지각에 의존하여 경험하는 현재의 순간뿐이다. 세계의 변화는 이렇게 인과적 물리 법칙에 따르는 기계적 인 것이기에, 에피쿠로스는 세계를 설명함에 그 어떤 외부적인 목적도 가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하는 사람은 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4. 다음은 한국 윤리 사상 고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은/는 무엇인가? ... (중략)...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이 일어남에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 의식의 빛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똑똑히 보고서, 이 본성 자리는 ... (중략)...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 (㉡)은/는 무엇인가? ... (중략)... 비유하자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각기관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 어른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지만, 아직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월이 제법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2016 실천모의고사 2회 8. 한국불교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속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지눌은 혜능과는 달리 돈오(頓悟)를 ()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눌이 말하는 돈오는 자신의 마음에 이미 부처의 본성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이다. 지눌은 혜능의 돈오는 수행의 최종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혜능의 돈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눌은 돈오를 수행의 시작에 놓았던 것이다.

☞ 2016 모의고사 5. 다음은 한국 불교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시작을 알 수 없는 오랜 동안의 습기(習氣)는 단박에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거해 닦음으로써만 차츰 익혀서 그 공부를 완성한다. 이것은 성인(成人)의 자질(胎)을 길러 오랫동안 거쳐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라/라 한다.

☞ 지눌 연습문제 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지눌에게 있어 돈오는 ()의 길이요, 점수는 실제적인 존재의 차원에서 성취하는 성불(成佛)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지눌은 깨달은 후의 수행에서는 정(定)과 혜(慧)의 두 문(門)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定)은 적연(寂然)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이고, 혜(慧)는 관조(觀照)의 공덕으로 인하여 발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무차별의 분별없는 앎이다.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정과 혜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는 반드시 병행해 닦아야 한다. 참된 수행이란 즉, 공적영지의 마음을 단박에 깨달은 후 다시금 그 마음의 공적(空寂)과 영지(靈智), 정과 혜를 점진적으로 함께 닦

아나가는 것이다.

5. 다음은 한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지만, 착하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나쁘다고 꾸짖으면 성낸다. 도둑은 수치심이 없지만, 청렴 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면 슬퍼한다. 이로부터, 그 ()을/를 알 수 있다. ... (중략)... 오늘 착한 일 하나를 하고 내일 의로운 일 하나를 하여 착한 일을 쌓아가고 의로운 일을 모아 심성을 기르면, 심기(心氣)가 날로 퍼지고 편안해지며 날로 넓어지고 살이 썩어서 호연히 굳세고 정직해질 것이다.
- 무릇 성(性)은 모두 () (이)다.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선(善)을 즐기고 의(義)를 좋아하니, 그것을 두 가지로 증험(證驗)할 수 있다. ‘눈앞에서 당장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고, ‘마지막에 이르러 살찌고 마르는 것’이 다른 하나의 증거이다.

☞ 한국윤리문제 29. 다음 글을 읽고 다산이 성즉리 사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설명하시오.

다산은 천명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성품(性)은 ‘덕을 좋아하고 오염된 것을 싫어하는 성질’일 뿐으로 처음부터 완비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단지 도덕적 기호(嗜好)의 성질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性)이란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지향성(기호)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性)은 하나의 기호(嗜好)이다. 이러한 기호(嗜好)에는 감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욕구로서 선과 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형구(形軀)의 기호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선한 도덕적 경향성인 영지(靈知)의 기호가 있다.

☞ 2016 실천모의고사 6. 다음 윤리 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시오.

- (갑) 본연지성이란 이(理)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이란 이(理)와 기(氣)를 섞어서 말한 것이요.
- (을) 하늘은 사람에게 스스로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었지요. 사람의 본성은 기호(嗜好)지요.

6. 다음은 한국 근대 윤리 사상의 내용이다. 밑줄 친 ㉠의 규범을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2점]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억지로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 나는 동(東)에서 나서 동에서 도(道)를 받았으니, 비록 도는 하늘[天]의 도이지만 학(學)은 동쪽의 것이다.
- 도의 실천은 ㉠사람을 대하는 대인(對人)과 사물을 접하는 접물(接物)에서 시작한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하늘과 하나 될 수 있고, 사물을 접하는 것에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 한국문제 4. 다음은 동학사상에 대한 대화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갑: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한울님의 지기를 몸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성에 있어서 한울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을: 그렇다면 사람을 대할 때는 한울님을 대하듯이 섬겨야 하겠군요.

갑: 그렇습니다. 한울님을 몸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빈부, 적서(嫡庶), ()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7.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갑 :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아무렇게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나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 (중략)... 진정한 자유는 인민이 최고 권력을 갖는 공화국에서만 존재한다. 공화국에서 인민은 ()을/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권리에 있어서 절대적 평등을 보장받는다. 자유는 정의로운 주인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가지지 않는 데 있으며, 자유가 방종이 될 경우 인민과 개인들은 노예상태로 전락 할 것이다.

을 : 트로글로다이트인(人)들의 공동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민적 덕성은 정치공동체가 존속하고 번영하는 데 필수적인 공화정부의 정신이며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배적 열정이다. 시민들이 탐욕과 야심을 좇아 ()을/를 무시하면 공화국은 와해되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은 반드시 필요 하다. 시민적 덕성을 시민들에게 불어넣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들의 열정과 욕망을 공동의 목표를 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정치사회사상문제 12. 다음 () 속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공화주의와 관련된 논쟁이 정치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카이사르와 키케로의 갈등 이후다. 카이사르에 맞서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키케로가 "미덕을 갖춘 시민이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을 이뤄서 개인의 행복도 증진시키려는 요구이며, 이를 위해 법을 지키고 교육을 받은 공화국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무엇이 공익인지를 합의해 간다는 의미다.

8.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정치사회사상문제 8. 다음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적 공동체는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정체성에 부분적으로 구성적인 자기 이해의 양식(a Mode of Self-Understanding)이다. 사회 성원들이 구성공동체 의식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동료시민으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지를-그들이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발견하는 애착,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구성인자-를 정의해 준다.

관계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보답의 공유가 없다면, 협력에 대한 참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고 있는 자아’의 삶이 아니다. ... (중략)... 도구적 공동체의 관점은 개인이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얻어 낸 이익을 선(善)으로 본다. 또한 정서적 공동체의 관점은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최종 목적과 협력의 구도 자체를 선으로 간주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 2가지 공동체를 넘어선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일정 수준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의 인격을 만들었고, 또한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성취에 있어 참여자이자 내가 누리는 혜택의 공동 수혜자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를 도구적 공동체 또는 정서적 공동체와 대조적으로 () (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9. 다음은 중학교 ‘도덕’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대한 대화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을 교사가 활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서술하시오. [4점]

[중학교 ‘도덕’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교육 과정 시기	㉠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	---	--	---	---

㉠, ㉡, ㉢에서 ‘도덕’ 교과의 내용 영역은 ‘생활 영역 확대’가 아니라 ()을/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지요.

네, 또한 ㉢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향’에는 ㉠프로젝트 접근을 실시할 경우, ‘도덕’ 교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접목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 도덕교육론문제 2. 다음 대화에서 ‘2007년 개정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해 바르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쓰시오.

- 갑 :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 을 :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학교급별 목표의 위계성을 부각시키면서, 도덕과 목표를 교과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 병 : 내용이 성취기준형 방식으로 진술되어있어서, 이점을 잘 활용하면 평가할 때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 정 : 도덕적 주제를 중심으로 가치관계 확장에 따라 4개의 내용영역을 설정하고, 내용요소를 주제 중심으로 잘 구성하고 있네요.

10. 다음은 도덕 교육 이론가의 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에서 실행할 중심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서술하시오. [4점]

많은 사람들이 가치 결정을 할 때 항상 엄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답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 결정의 정당화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모형은 (㉠)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가치의 정당성을 중요시하며 논리적 사고를 통해 가치를 탐색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먼저 가치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 하며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어서 사실들의 진위를 평가하여 그것들의 관련성을 명료화함으로써 잠정적 가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내린 가치 결정을 검토하도록 돕는다.

☞ 2017 실전모의고사 8회 8. 다음은 도덕과 교육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밑줄 친 것에 대해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10점]

갑: 쿼츠는 가치를 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도덕적 가치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을: 그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였나요?

갑: 도덕적 가치판단이 다른 가치판단에 우선한다고 보고 도덕적 가치판단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을: 도덕적 가치판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갑: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을: 가치분석의 교수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성 방법>

5가지를 번호를 붙여 작성하시오.

11.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을 서술하시오. [4점]

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사유의 덕이라 부르고, 다른 어떤 것들을 품성의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 이해력은 사유의 덕이라 부르고, 너그름과 용기는 품성의 덕이라고 부른다. ... (중략)...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더라도 ()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 속에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지식을 지배하며 지식을 마치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학자에 따르면 ()(이)라는 것은 없다. 즉 최선의 것을 파악하면서 최선의 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 (중략)... 그러나 나는 그 철학자의 견해가 관찰된 사실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2017실전모의고사 1회 1.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이 사상가가 생각하는 ㉠의 개념을 ㉡과 연관시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판단을 옳게 하는 사람이라도 자제력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으려면 (㉠)이/가 필요하다
- 언제나 (㉠)와/과 ㉡도덕적인 덕을 다 같이 따라서 해야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다.

<작성 방법>

- ㉠과 ㉡을 반드시 연관시켜 서술할 것.
- 위의 세 글의 논리적 구조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2017 실전모의고사 6회 6.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사람은 선을 알면 선을 행한다.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 비자발적인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지식(episteme)을 탐구하려면, 감각에 의존하는 지식(doxa)을 논박을 통해 제거한 다음에 참된 인식의 기반인 ()을/를 매개로 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모든 행위의 근거를 묻고 따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 서양윤리문제 14. 다음은 서양 고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속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과 밑줄 친 것에 대한 설명을 각각 쓰시오. [4점]

악행은 행동 양식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나 신념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종류의 사물이나 쾌락이 ()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악행은, 그것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행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루어진 무지의 산물이다. 무지는 어떠한 행위가 ()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나타난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옳은가는 그 행동이 참된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그 문제는 참된 지식의 문제이다.

12. 다음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의 가상 토론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답을 서술하시오. [4점]

갑 : 행복은 바랄만 한 것이며, 목적으로서 바랄만 한 것은 오로지 행복뿐입니다. 나아가 행복은 그 누구의 것이든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편의(expediency)의 원칙과 구별되는 ()의 원칙에 정초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즐거움이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가지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이 더 선호하는 즐거움이 더 바랄만 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행복 자체가 중요한 것만큼 누구의 행복인지도 중요한 것은 아닌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보다 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대한 을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을 :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판단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성(理性)은 정념(情念)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념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을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 서양사상문제 68. 다음 밑줄 친 것은 결국 무엇인가?

흠은 사회의 공리나 이기주의에 의해 인간이 사회나 혹은 정의의 틀로 들어온다 해도 이기주의 이외에 “정의에 대한 도덕적 근간”을 마련해 주는 그 무엇이 있다고 주장한다. 흠은 인간에게는 “인류 전체의 복지에 대한 공감의 감정”으로서의 “인간성의 정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사회 전체의 유용성에 기여하는 모든 것에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의의 감정은 바로 이 인간성의 정서가 그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동료(동료)를 보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나도 그러한 불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 “인간성의 정서”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3. 다음은 중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이고, 측은수오사양시비(惻隱羞惡辭讓是非)는 (㉡)이다. 인(仁)으로 사랑하고 의(義)로 미워하며 예(禮)로 사양(辭讓)하고 지(智)로 아는 것이 마음[心]이다. ... (중략)... 마음은 (㉠)와/과 (㉡)을/를 주재(主宰) 한다.
- (㉢)은/는 무엇인가? 오직 ‘삼가 조심한다[畏]’는 말과 같을 뿐이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앉아 전혀 아무 일도 살피지 않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 (중략)... (㉢)은/는 오직 일에 따라 전일(全一)하게 삼가 조심하면서 마음을 풀어 놓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작성 방법>

-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그 관계를 설명할 것.
- ㉢의 구체적 실행 방법 2가지를 제시할 것.

☞ 7-8월 문제 104.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사람이 가진 마음(心)은 “성이 아니라” “성(性)과 정(情)을 ()하는 것”이다.性は “마음의 理”이고 情은 “마음의 활동(心之動)”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心)은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재”한다. 마음의 理인性は 동일하지만, 마음의 활동인 정(情)으로 나타날 때는 청탁의 차이가 있게 된다.

☞ 2017 실전모의고사 8회 3. 다음은 어느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가 되겠다는 뜻을 세워야(立志) 한다. 공경(敬)과 집의(集義)의 마음을 간직하고, 심성을 기르고 덕을 닦으면(涵養致知) 자연히 생각을 참되게(誠意) 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바르게 되어(正心) 천리를 따라 스스로 만족하며(安分知足) 살아가는 ()이/가 될 수 있다.
-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主一無適)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存養省察·存心養性) 내적 수양을 거경(居敬)이라 하고 사물의 이치(理)를 연구하여 완전한 지식에 이르려는(格物致知) 외적 수양을 궁리(窮理)라고 한다.

☞ 2016 전국모의고사 3. 성리학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경(敬)이란 반드시 일에 따라 점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신을 한가지로 집중하는 敬은 일이 없을 때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일에 닥쳐서는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야(敬) 해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敬함에도 “살아있는 敬”이 있고 “죽은 敬”이 있는 것이다. 주자는 “죽은 敬”에 대해서는 의미상으로는 “살아있는 경”과 같이 경(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4. 다음은 홉스(T. Hobbes)와 로크(J. Locke)의 가상 대화이다.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자연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보장할 강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사회계약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인간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항상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가 됩니다.

아닙니다. 자연상태에서는 ㉠.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닌 권력과 힘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리바이어던에 양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 사회계약론 로크 연습문제 1.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는 생명·자유·소유권을 지켜야 할 자연법의 집행은 개개인의 사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거기에는 만인에 의해 지켜져야 할 공통의 법률도, 권위 있는 재판관도, 판결의 결과를 집행하는 권력도 없다. 따라서 만인은 '계약'에 의해서 사적·개인적인 제재권을 공공의 권력에 위탁하여 자연법의 완전한 실현을 꾀함으로써 시민사회와 국가가 성립된다. 정치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입법권력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하나의 신탁적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기관이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에 반하여 행동하는 일이 있을 때는 입법기관을 해임 또는 경질하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에 게 남아 있다".

3교시

1.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쓰고,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의 의미를 서술 하시오. [4점]

제1원칙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고,
(b) ()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 2017 실전모의고사 4회 7. 다음은 서양 사회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밑줄 친 ㉠에 들어 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5점]

-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_____㉠_____ 경우에만 자유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고, 적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이 용납할 경우에만 불평등한 자유가 허용될 수 있다.
- 차등의 원리보다 ()의 원리가 우선한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도 ()의 원리에 부합할 때만 정당화된다. 두 가지 원리 모두는 효율성의 원리나 평균총량 극대화의 원리(공리주의)에 우선한다.

☞ 정의 연습문제 1. 다음의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자유를 우선한다는 것은 경제적 ()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라는 미명 하에 불가침성을 갖는 기본적 자유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온다할지라도, 이러한 이익을 위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정치사회사상문제 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물론 제2원칙을 통해 불평등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 불평등으로 ①-----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그 사회의 최고의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불평등한 분배를 인정하는 경우 한 사회의 특정한 지위나 직위는 여타의 직위보다 큰 몫의 분배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나 직위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즉 불평등한 분배에서 큰 몫의 권한을 갖는 지위나 직위는 모든 사람이 ② ----- 되어야 한다.

2. 다음은 서양 현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밑줄 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 역할을 서술 하시오. [4점]

- 사회통합의 토대가 오직 논증의 힘에 의해 이룩된 합의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사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러한 사회에서는 (㉠)윤리가 전개되고, 오직 상호주관적 언어 행위 속에서 작동하는 도덕만이 권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도덕 안에서 규범적인 것의 원천이 시작되고, 이런 도덕과 함께 규범적 타당성의 합리적 의미가 펼쳐진다.
- 시민사회는 사람들의 일상을 이루는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가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민 사회의 연결망을 통하여 생활세계와 체계를 적극적으로 매개 하는 의사소통구조이다.

☞ 서양윤리문제 27. 다음 글의 ()안에 들어 갈 말과 하버마스가 극복하고자 했던 기존 윤리학의 두 가지 조류를 쓰시오.

담화윤리는 소통행위 이론의 연장선에 있다. 소통행위 이론은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언어를 통해 상호조정이 가능한가를 사회학적 차원에서 다루는 이론이다. 담화윤리는 상호행위조정이 ()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담화윤리가 ()의 보편적 합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절차성과 형식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담화윤리를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의 전통에 잇대어 가는 전략을 수행한다.

☞ 2017 실전모의고사 7회 3.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에 대한 글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점]

- 토론과 설득 및 이성적 ()에 의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이다.
- 모든 민주적 절차는 반드시 롤스의 공적 이성이나 하버마스의 이상적 언어소통상황에 의한 공적 심의 또는 정치적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의를 통한 ()이/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_____ ㉠ _____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3. 다음은 통일교육에 대한 주장들이다. () 안에 들어갈 민족주의의 유형을 쓰고,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시오. [4점]

(가)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문화를 유지해 왔으나, 분단 이후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누어져 살아오면서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통

일 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민족 공동체 건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로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을/를 지향해야 한다.

☞ 2016 실천모의고사 1회 3. 다음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이다. 갑~병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4점]

갑 :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너무나 당연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 건설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가 아닐까. 어떤 개인적·집단적 가치도 민족국가 복원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을 : 분단에 따른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통일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야.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불안요소 제거, 내수시장 확대, 단일 경제권 형성, 국내적 갈등 감소 등 막대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 또한 분단으로 인한 제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지.

병 : 하지만 통일은 민족공동체 복원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 등과 같은 보편 가치 신장을 위해 필요해.

4. 다음은 동양 사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의 의미를 <보기>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점]

- 이 법(法)은 심히 깊고, 보기 어렵고, 미묘하여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지고, 욕망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법, 즉 ㉠모든 존재는 () (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이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말하자면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행(行)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識)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중략)... 이 법은 항상 존재한다. 법이 모든 존재[法界]에 머무는 것을 여래는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等正覺)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위해 펴서 설하고 열어서 보이고 밝혀서 드러낸 것이다.

<보 기>

있음[有]/없음[無] 또는 생함[生]/멸함[滅]

☞ 동양문제 51. 다음 () 속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일체 제법은 여러 인연으로 생겨나므로 고정된 有가 아니라 “공(空)”이다. 하지만 연기한 일체 제법은 비록 공하지만 연기하여 존재하는 것이기에 결코 無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일러 “가(假: 거짓)”라고 한다. 연기법은 한편으로는 공이고 한편으로는 假이므로 유와 무를 떠나 “중(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 空·假·中의 삼제(三諦)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空이라 하면 假와 中이 따라가고, 가라 하면 空과 中이 함께 하므로 언제든지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어서 삼제가 늘 서로 응하여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삼제는 이름이 공이고 가이고 중일 뿐이지 실제로 이것을 공이라 하고 가라고 하여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 7-8월 문제 90.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 멋대로 ‘나’라는 모양[我相]을 설정해 두고 그 모양에 집착한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면 그것이 곧 실상인데, 그 실상이란 것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듯 연기하는 세계는 무상하고 무아이므로 고정된 我相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집의 상태, 연기의 진리를 모르고 실재하지 않는 일시적인 존재에 대해 실재한다고 상을 짓고, 거기에 얽매어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이라고 한다.

☞ 7-8월 문제 93.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법장은 금사자상의 비유를 들어, 금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본체의 세계는 본래부터 그 자체로 자족하여 더러운 곳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고 닦아도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자성청정(自性淸淨)”인 “리법계(理法界)”로, ()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의 세계를 “사법계(事法界)”로 명명한다. 금사자상이 금을 인(因)으로, 장인의 제작을 연(緣)으로 삼아 생성된 것처럼 이 세계 속의 모든 사물은 모두 인연이 화합하는 ()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5. 다음은 외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 ㉡을 모두 활용하여 ㉢와 ㉣를 각각 설명하시오. [4점]

대법원은 뇌 손상 때문에 식물인간이 된 A 할머니를 대신해 가족이 제출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A 할머니가 이전에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연명 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어려운 도덕적 주제에 대한 판결로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의 판결이 다루는 주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조력자의 의도 및 역할이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 주제는 소극적인 경우와 적극적인 경우로 구분 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연명 치료의 중단에 그치는 소극적인 경우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기준은 ㉠삶과 죽음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의 보유 여부와 ㉡스스로 결정한 내용의 공표 여부이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 주제는 자발적인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 ㉣반자발적인 경우로 구분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경우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연명 치료 중단을 A 할머니가 결정할 당시에 삶과 죽음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지녔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당시에는 연명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처지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6. 다음 갑, 을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갑의 입장에 대한 을의 비판을 ㉡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5점]

갑 :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동시에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닌 결코

누군가의 한낱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격성은 우리 자신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법칙의 주체요,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의 주체이며, 이 주체를 위하여 그리고 이 주체와 일치해서만 도대체 무엇인가가 신성하다고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중략)...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인격성의 이념은 우리의 행태가 우리 본성의 숭고함에 어울리지 않는 결함이 있음을 주의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이 숭고함을 눈앞에 제시 한다. 이러한 인격성의 이념은 가장 평범한 인간 이성에서도 자연스레 그리고 쉽게 눈에 띈다.

을 : 신이 없다면 적어도 (㉠)보다 앞선 존재, 또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정의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먼저 있어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상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 (중략)...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세상에 한번 내던져지자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까닭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 2017 실전모의고사 5회 14. 다음은 서양 현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속에 들어갈 용어와 밑줄 친 것의 원인을 각각 쓰시오. [4점]

인간의 ()은/는 미리 정의될 수 없다. 인간은 실존한 후에야 자신과 대면하고 세계 내에 출현하며 그 뒤에야 자신을 정의한다. 삶이란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주체인 '나'에 의해서 그의 의미가 규정되는 객체이다. 타인과 나의 관계는 투쟁으로 귀결된다.

7. 갑, 을, 병은 동양 고대 사상가들이다. 갑, 을이 공통으로 주장 하는, 밑줄 친 ㉠의 원인 2가지와 ㉡의 방안 1가지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5점]

갑 : 똑똑한 사람을 높이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둑질 하지 않게 된다. 욕심 낼만 한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 주며, 그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대를 강하게 한다.

을 :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되는 것이 있으니 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되는 것이 있다.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른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방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하늘[天]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병 :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천하의 혼란이 일어난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혼란이 일어난 원인을 모르면 다스릴 수 없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병이 생겨난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병이 생겨난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다. 어찌 ㉡천하의 혼란을 다스리는 일만 유독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 7-8월 문제 83.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성인의 통치는 백성의 (①)을 비워주되 그들의 (②)를 채워주고, 백성의 심지를 약화시키되 그들의 신체를 강건하게 해주어, 항상 인민을 무지(無知)하고 욕망이 없는(無慾) 상태에 있도록 하여, 지혜로운 자(智者)로 하여금 감히 수작(爲)을 부릴 수 없도록 한다.”

☞ 동양문제 6. 다음 ①, ②, ③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인은 시비(是非)를 조화시키고, ①천균(天鈞) 속에서 쉰다. 그것이 바로 ②양행(兩行)이다. 만물을 하늘의 관점에 비추어보는(照之於天) 성인은 만물 상호간의 시비에 대해 모두 옳기 때문에 그대로 맡겨 두고 논변하지 않는다. 성인은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적 필연성(命)에 순종하여 편안히 머무른다(安命). 그러므로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고 싶은 자(逍遙遊)는 ③성수반덕(性修反德)해야만 한다.

☞ 동양문제 9. 다음 밑줄 친 것에 대한 묵자의 생각을 비판하시오.

묵자는 천하의 혼란이 “하늘의 뜻(天意)”에 순종하여 “천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겸애”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兼士)과는 달리, 오직 자신의 시비기준(義)을 가지고 자신과 남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차별(別)”의 도를 주장하는 사람들(別士)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을 만든 하늘의 뜻(天意)은 “서로 똑같이 사랑하고(兼相愛) 서로 똑같이 이롭게 하라는 것(交相利)”이었지, “서로 차별하여 미워하고(別相惡) 해롭게 하라는 것(交相賊)”이 아니다.

8. 다음 글을 읽고, ‘도덕 교사의 역할’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 하시오. [10점]

도덕 교사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덕 교사는 다음의 중요한 2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도덕 교사는 도덕 교육의 목표 측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도덕 발달 이론에서는 그동안 공정성, 권리, 동등성 등에 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의 관점이 중시되어왔다. 그러나 길리건(C. Gilligan)에 따르면, 도덕 교육의 목표에는 ㉠‘다른 목소리’를 강조하는 배려의 관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덕 교사는 도덕 교육의 방법 측면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 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정의의 관점은 교사가 학생의 인지적 추론 능력을 촉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배려의 관점의 경우, 나딩스(N. Noddings)는 학생들이 자신의 ㉡‘윤리적 이상’을 키우도록 돕는 4가지 실천 방법을 강조하였다. 나딩스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언행을 통하여 배려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는 ‘본보기’의 방법, 교사가 배려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더 훌륭한 자아를 찾아서 격려해 주는 ‘확인’의 방법,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 ㉡의 의미를 각각 반영하여 도덕 교육의 목표설정 측면에서 설명할 것.
- 밑줄 친 ㉢의 명칭들을 쓰고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여 도덕 교육의 방법 활용 측면에서 설명할 것.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출 것.

☞ 도덕교육론 문제 18. 다음 밑줄 친 것을 설명하시오.

나딩스의 배려(보살핌)의 윤리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 ‘함께 느낌’의 감정을 중시한다. ‘함께 느낌’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몰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받아들

이는 ‘끌어 앉기’를 강조한다. 보살핌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보편화 가능한 원리를 잘 따랐는가 보다는 도덕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했는지와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나딩스는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 2015예상문제 3. 다음 글을 바탕으로 나딩스가 요구하는 도덕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나딩스는 보살핌(배려)의 관계가 보살핌의 관계 사슬을 통해 더 멀리 있는 낯선 타인에게로까지 확대되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윤리적 이상”으로 고양될 때만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지식 중심의 서양의 교육이 초래한 오늘날의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나딩스는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보살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자아상을 고양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 도덕교육론 문제 17. 다음 주장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딩스는 모든 교육은 배려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도덕교육에 그 목적을 두고, 교육 내용은 “배려”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 평가제도, 처벌 방법, 학교규칙 등을 포함한 학교의 제도와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덕교육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완수해나가야 하는 과업으로, 특히 학교가 “배려의 공동체”가 되어 학생들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